

## 28회 TESOL 졸업생 박솔 님 (학업기간: 2014/3/10~5/2)

CELLA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인 TESOL을 3일 전에 이수하고 쓰는 제 경험담을 통해 필리핀에서 TESOL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CELLA를 선택하게 된 큰 이유 중 하나는 작년 8월 친한 친구가 이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진로에 고민 중인 저에게 TESOL 프로그램을 소개 시켜주며 세무에 있는 여러 학원들 중 유일하게 호주와 연계되어 좋은 퀄리티의 교육내용을 받을 수 있는 반면, 호주와 비교했을 때 학비가 경제적이라 앞으로 영어 교사가 되고 싶은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TESOL을 시작하는 첫 날, 오리엔테이션에서 4주 수업 내용 계획서를 받았는데, 주 5일 4주, 즉 20일치의 수업이 미리 계획되어 있음을 통해 그 동안의 노하우가 녹아 들어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의 첫 일주일만 TESOL에서만 사용되는 생소한 용어와 앞으로 진행될 수업의 기본 뼈대에 익숙해지는데 많이 집중 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서 그날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며 복습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클래스메이트들과 선생님들과 가까워지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 나름으로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 또한 교사가 될 것이기에 이러한 노력은 교사로서 갖고 있어야 할 중요한 모습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수업 내용 중 잘 이해되지 않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쉬는 시간을 통해 TESOL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매주 금요일 진행되는 수업 시연을 준비할 때에도 더 나은 수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조언해주시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어가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를 골고루 잘 해야 영어 좀 한다고 인정해주지만, 한국에서는 개개의 영역을 나누어 학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학원에서도 각각의 과정을 개설해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어를 배우다보니 4개의 영역을 따로 구분하여 학습하기보다 골고루 융합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TESOL을 하다보면 주차별로 강조하는 영역이 있지만 비율의 차이로 4개의 영역을 한 수업 안에서 모두 활용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읽거나 영어듣기를 하고서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을 생각해본 다음에 클래스메이트와 생각을 나눈 뒤 발표를 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내주신 지문과 관련된 새로운 질문에 대해 작문을 하는 방향으로 모든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수업 시간 중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상대방을 더 알아가는 질문을 하는 것이라던지(나중에 제가 활용할 액티비티지만 이 수업에서는 이것 덕분에 클래스메이트와 더 빨리 친해진 것 같습니다.),



여행이 주제인 챕터에서는 세계 각 주요도시 이름을 맞추는 게임이라던지, 어떤 단어를 마음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맞춰보는 스피드게임을 하며, 매일 5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했지만 중간 중간 감초역할을 한 덕분에 시간이 빨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수업 내용 외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엄격한 출결관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달 20일의 커리큘럼이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주간 정해진 학습내용을 끝내기 위해 필리핀에 있었던 4달 동안 가장 집중했던 1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결코 쉬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수료증을 받고 보니 이제야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 할 예정이지만 TESOL의 경험이 저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기에 더 열심히 준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